

도시민의 혼례의식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sciousness toward Wedding Ritual :  
A Comparison of the Young and Old Generation\*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강사 이윤금  
교수 서병숙

Dept. of Consumer & Family, Hanyang University  
Lecturer : Yoon Geum Lee  
Professor : Bung Sook Seo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eration on consciousness toward wedding ritual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ir consciousness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Data were obtained from 489 individuals living in Seoul. O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generation on consciousness toward wedding ritual.

The effect of generation was significant in the consciousness of wedding procedures, while it was not significant in the consciousness of wedding expenditures,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It was also found that procedure-important style was associated with more expenditures on wedd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aterialism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consciousness of wedding procedures for both generation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is usefu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educators wh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build desirable wedding culture in Korea.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심포지엄 내용을 보완한 것임.

## I. 문제 제기

전통적으로 혼례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일 뿐 아니라 가족간 그리고 개인간의 결합으로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통과의례로서 기쁘고 즐거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이룩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혼례문화는 전통혼례의 의미가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의식절차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혼례의 무규범, 허례허식 그리고 무의식적 서구화 추종, 지나친 물질주의 추구 등 헤아리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혼례문화의 폐단은 복잡한 혼례절차 뿐만 아니라 호화혼수의 문제로, 혼수를 통한 물질에 대한 자기과시욕의 표현이나, 혼인주관자의 자녀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한다는 행위, 혼인과 관계된 상업주의의 자극 등으로 가속화되어, 오늘날의 혼례는 혼인의 심오한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이기보다는 사치와 낭비로 변질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한 건당 혼례비용은 1996년 불변가격으로 볼 때, 1960년대 후반에는 423만원(주택비용 제외)이었는데 1990년에는 1500만원, 1993년에는 2000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3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임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거시적인 측면의 통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이 발표한 가정의례 비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전국의 연간 혼례비용의 규모는 12조2천1백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한국의 혼례비용은 1인당 GNP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4.8배, 일본의 3.3배, 영국의 3.2배, 대만의 3.7배, 싱가포르의 7.3배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혼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혼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혼례관행에 있어서의 호화혼수의 문제점 및 혼례문화에 있어서의 상업성이 사회병폐로 대두되면서 개인적인 연구

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대량 표집하는 여러 가지 조사 연구가 실시되었다. 즉, 결혼예식장이용실태조사(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혼례관행을 문제삼은 의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한국사회문화연구원, 1996),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혼례비용의 추세에서 혼인비용에 관한 실태조사(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등 혼례문화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와 같이 사회 각처의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혼례관행을 문제삼은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가 빈번히 있었으나 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국 규모의 혼례비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의 혼례비용이 엄청나서 우리 사회의 혼례가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결혼예식장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오늘의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하였지만 혼례에 대한 의식을 진단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과도한 혼례비용지출이 사회지도층의 과시적 소비나 중산층의 이를 모방하는 편승소비, 그리고 일생에 한 번 뿐인 행사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혼례를 무리를 해서라도 성대하게 치르려는 부모주도형 혼례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부모주도형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모세대와 미혼세대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까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과 혼인적령기의 미혼들의 의식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세대와 혼인적령기 남녀세대를 대상으로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실태를 조사하고 동시에 이러한 혼례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나아가 각 연령집단(어머니세대, 미혼세대)의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살펴봄으로써 왜곡된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혼례의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86)에서는 각계 각층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혼수에 대한 여성의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약혼식은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1%였고, 함들이기에 대해서는 53.6%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폐백은 73.6%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예물은 간소화를 원하는 의견이 63.6%로 많았다. 또한 혼수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80.8%의 대다수가 혼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혼수마련 풍토에 대하여는 88.8%의 대다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현주(1991)는 미혼남성의 결혼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미혼남성의 결혼의식에 대한 의식은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르겠다는 경향이 높고, 약혼식은 오히려 월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전 꼭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54.6%가 1년이상 결혼비용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고, 결혼비용의 부모님 부담에 대한 의견은 85.6%가 되도록 부모님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어느정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전문기술직, 사무직,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마련을 빨리 하겠다는 의견이 높았고, 축의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풍양속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지녔으며, 과반수 이상이 축의금을 결혼식 비용에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는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를 하였는데, 결혼비용 지출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10.7%는 무리를 해도 괜찮다로 응답하여 과소비적인 최근의 소비의식이 결혼비용 지출면에서 드러났고, 신혼주택 마련비용은 남자 단독부담이 83.9%, 남녀 공동부담이 13.8%, 여자 단독부담이 2.0%로서 남자가 거의 주택마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에서는 혼인적령기 및 신

혼세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세대, 신혼 자녀를 둔 부모세대를 포함한 총 1,22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혼례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였는데, 혼례비용마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경제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례비용 예산과 실제의 차이에 있어서 대다수인 88.6%가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좀 더 좋고 고급스런 것에 대한 욕심때문(47.7%)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물질주의 가치지향이 그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 총결혼비용(주택비용 제외)이 3,290만원이었는데, 주택비용을 제외한 평균 결혼비용은 남자가 1,181만원, 여자가 2,109만원으로 나타났고, 주택비용을 포함한 총 혼례비용은 7,539만원으로 나타나 우리의 혼례비용 규모가 과도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의 혼인한지 5년 이내의 신혼여성에 대한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포함한 총 혼례비용 평균은 신랑측이 4,990만원, 신부측이 3,170만원으로 총 8,16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례비용을 정할 때 중요시한 요인으로 본인집안의 경제력, 배우자집안의 경제력, 그리고 사회관습을 지적하여, 혼인비용 지출이 자신의 신념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물질지향적인 성향이 혼례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명나(1998)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기주부와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의 혼례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은 중간점수를 상회하여 비교적 근대적인 혼례의식을 나타냈다. 특히 신혼기주부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보다 더 근대적인 혼례의식을 보였다.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혼례의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혼례의식은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

리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혼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대다수가 혼수마련풍토가 개선되어야한다고 하였고,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의존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례비용을 정할 때 중요시한 요인이 부모 또는 자신의 경제력에 좌우한다는 물질주의적이고 과시적인 소비의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김명나(1998)의 연구에서 신혼기 주부와 기혼딸을 둔 어머니의 혼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으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의식은 배제되었으므로,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및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혼례의 병폐로 지적되어 있는 물질주의적 성향이나 부모의존적 성향, 그리고 혼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혼례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혼례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특히 남자들의 혼례의식에 있어서 도시에서는 젊은 층이 농촌에서는 장년층에서 근대화된 의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경순, 1986), 기독교 및 천주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혼례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유미, 1990).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김명나, 1989).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이 미혼남성의 혼례비용 지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유현주, 1991). 신혼기주부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인형태, 직업유형, 혼인거래관행인지도,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자아긍정감, 친가생활수준인지도 등이었고, 반면에 기혼딸을 둔 어머니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물질주의성향과 혼인거래관행인지도이었다(김명나, 1998).

이러한 혼례의식 및 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연령, 종교, 학력,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및 혼인거래관행인지도 등 혼례관련 가치관 변인들이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세대간의 혼례의식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혼례관련 가치관 및 의식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각 세대(미혼, 어머니)의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변수 및 분석모델

〈연구문제 1〉의 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혼례에 대한 의식실태는 예상하는 총 혼례비용을 묻는 문항, 그리고 약혼식, 예단, 함들이기, 폐백, 청첩장, 피로연 등 혼례절차 및 관행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 혼례와 관련된 가치관을 묻는 문항(부모주도성향, 물질주의성향, 예단중시성향, 절차중시성향)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혼례풍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및 혼례비용조달에 관한 문항 등을 통해 두 집단의 의식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2〉의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델에서 세대변수(어머니)가 미치는 영향

력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3〉의 각 집단의 혼례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 및 혼례관련 가치관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델을 어머니세대와 미혼남녀세대에게 각각 적용시켰다. 각 집단에 대해 설정된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 = f (생활수준, 교육, 혼례준비저축, 직업, 물질주의성향, 예단중시성향, 축의금중시성향)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 = f (생활수준, 교육, 혼례준비저축, 직업, 물질주의성향, 예단중시성향, 축의금중시성향, 부모주도성향, 절차중시성향)

위의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인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은 '혼례는 통과의례이므로 절차-약혼식, 합들이기, 혼인식, 폐백, 신혼여행, 이바지음식-를 다 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절차를 중시한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또한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은 혼수비용과 혼례절차비용을 포함한 '예상하는 총혼례비용'을 묻는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조사문항에 의해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및 혼인적령기 남녀로서 예비조사는 1997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중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b>종속변수</b>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은 중요)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 (예상하는 총혼례비용)	1=매우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혼수비용(예물, 예단, 신혼살림)+혼례절차비용 (약혼, 결혼식, 합값, 신혼여행)+기타비용
<b>설명변수</b> 세대 변수 연령집단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직업여부 경제생활수준 혼례준비용저축 혼례관련 가치관 변수 부모주도 성향 <sup>a</sup> 물질주의 성향 <sup>b</sup> 예단 중시성향 <sup>c</sup> 축의금 중시성향	1=어머니세대,      0=미혼남녀세대  1=중졸,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이상  1=있음,      0=없음 1=상류,      2=중류,      3=하류 1=저축있음,      0=저축없음  1=매우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1=매우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1=매우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5=매우그렇다 1=축의금은 있어야함,      0=없애는 것이 좋음

- a: 부모가 주체가 되어 혼수준비를 도와주어야 자녀가 잘산다.
- b: 물질을 충분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만족하게 한다.
- c: 예단은 원만한 시대가족과의 관계에 기여하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많이 한다.

산층을 중심으로 과소비적 혼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세대는 중류층을 중심으로, 미혼세대는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편의표집하였다. 각 집단에게 300부의 질문지를 각각 배포하였는데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489부를 최종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혼례절차 및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고, 혼례관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혼인비용 조달측면에서의 의견은  $\chi^2$ -검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혼례절차 및 비용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분석에 앞서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혼인적령기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어머니집단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였고, 미혼남녀 집단의 평균 연령은 약 25세였다. 주택비용을 제외한 예상하는 혼례비용은 어머니집단의 경우는 약 2천254만원이고 미혼남녀 집단의 경우는 약간 높은 2천337만원이었다. 교육수준은 어머니집단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이 44.3%였고, 미혼남녀 집단은 전문대 졸업이상이 90.3%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집단의 경우 전업주부가 63.0%였고, 미혼집단도 취업인 경우 보다는 비취업인 경우가 61.3%나 되었다. 두 집단 모두 경제생활수준을 자신을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는 비율이 많았고, 혼례용도를 위한 저축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혼례자금을 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속형 변수	집 단	어머니 (n=223)	미혼남녀 <sup>a</sup> (n=266)
		Mean(SD)	Mean(SD)
연 령		50.6( 4.5)세	24.6( 2.8)세
예상하는 혼례비용(주택제외)		2254.1(1073.6)만원	2337.4(1629.3)만원
예상하는 혼례비용(주택포함)		6429.7(3238.5)만원	6874.2(5405.9)만원
범주형 변수	집 단	Freq(%)	Freq(%)
교육수준	중 졸	34(15.2)	0( 0.0)
	고 졸	90(40.4)	26( 9.8)
	전문대졸	11( 4.9)	22( 8.3)
	대학원이상	83(37.2)	180(67.7)
직업유무	취업	78(34.4)	103(38.7)
	비취업	143(63.0)	163(61.3)
경제생활수준	상류계층	19( 8.4)	42(15.8)
	중류계층	182(80.2)	197(74.1)
	하류계층	20( 8.8)	26( 9.8)
혼례준비용저축	저축유	159(71.3)	105(39.5)
	저축무	59(26.5)	161(60.5)

\* 합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응답 때문임.  
a: 미혼집단에서 남성은 82명, 여성은 184명임.

한 저축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미혼남녀의 경우는 자신의 혼례자금을 위한 저축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 혼례에 대한 의식의 일반적 경향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미혼남녀의 혼례 관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대부분의 혼례관련 가치관변수들이 중간점인 2.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절차중시성향의 경우만 두 집단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들이 미혼들에 비해,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고, 부모주도로 혼례를 하는 것에 조금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물질주의성향의 평균값은 미혼집단에서 어머니 보다 높게 나타나 물질을 충분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만족하게 한다는

물질주의성향이 미혼집단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단이 시택과의 관계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성향을 보였다.

혼례절차 및 관행의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와 미혼남녀간의 의식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집단의 경우 미혼집단 보다 약혼식, 예단, 폐백 등의 혼례절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미혼남녀 집단은 어머니집단 보다 청첩장과 합들이기의 필요성에서 약간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미혼들은 청첩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행 우리 나라의 혼례혼수풍토에 대한 두 집단간의 견해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과다지출풍조의 만연'에서만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들이 미혼들 보다 우리의 혼례혼수풍토에 있어서 과다지출풍조가 만연하다는

<표 3> 혼례관련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변 수 <sup>a</sup>	어머니(n=223)		미혼남녀(n=266)	
	Mean	SD	Mean	SD
부모주도 성향	2.38 <sup>a</sup>	1.08	2.22	0.99
물질주의 성향	1.95	0.85	2.08	0.87
예단중시 성향	2.10	0.84	2.10	0.85
절차중시 성향	2.70	1.02	2.57	0.98

a: 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함.

<표 5> 혼례혼수풍토에 대한 인식

집 단	내 용	과다지출 풍조만연	혼례혼수풍조 개선요구	간소한 혼례 모델 필요
어 머 니(n=223)		4.53 <sup>b</sup>	4.43	4.15
미혼남녀(n=266)		4.27	4.34	4.08
t값 <sup>a</sup>		4.43 <sup>***</sup>	0.15	0.91

a: t값을 절대값을 취하여 제시함.

b: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혼수풍토에 있어서의 문제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임.

\*p<.05, \*\*p<.01, \*\*\*p<.001

<표 4> 혼례절차 및 관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집 단	절차/관행	약 혼 식	예 단	합들이기	폐 백	청 첩 장	피 로 연
어머니(n=223)		2.79 <sup>b</sup>	3.35	3.25	3.87	3.86	3.86
미 혼(n=266)		2.56	3.04	3.37	3.24	3.97	3.76
t값 <sup>a</sup>		2.71 <sup>***</sup>	3.89 <sup>***</sup>	1.00	6.78 <sup>***</sup>	1.47	1.33

a: t값을 절대값을 취하여 제시함.

b: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p<.05, \*\*p<.01, \*\*\*p<.001

것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집단은 미혼집단 보다 현재의 혼례혼수풍조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간소한 혼례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머니들이 오늘날의 혼례혼수풍조에서의 병폐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례비용조달 측면에서의 두 집단의 의식을 카이 검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혼주택은 '신랑측이 마련한다'에 대한 응답이 두 집단 모두에서 비교적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즉 주택마련은 신랑측에서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은 주택마련에 상응하는 비용의 혼수마련을 신부측에서 함으로써 전체적인 혼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일반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동마련한다'는 의식은 미혼집단에서 어머니집단 보다 더 빈도수가 높는데 이는 젊은층의 남녀 평등주의적인 의식

이 주택마련비용의 분담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식에서는 미혼집단에서 어머니집단 보다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 주택마련비용의 조달에 있어서 혼인적령기 미혼들의 의식이 부모의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을 보면, 혼례비용 부담정도에 있어서 '부족분만 부모부담'은 두 집단 모두에서 빈도수가 높았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지만 '전적으로 부모가 부담하겠다'는 의식은 어머니집단에서 5명(1%),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겠다'는 의식은 미혼집단에서 50명(102%)으로 파악되었다.

혼례비용지출 결정권에 대하여 어머니집단과 미혼집단이 스스로를 혼례비용지출 결정자로 인지하고 있는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어머니세대들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원하고 젊은세대들도 그

<표 6> 혼례비용조달 측면에서의 두 집단의 의식비교

내 용	집 단	어머니(n=223)	미혼남녀(n=266)
		신 랑 측 마 련 공 동 마 련 시 택 에 동 거 당 사 자 스 스 로 기 타	84(17.2) 49(10.0) 17( 3.5) 69(14.1) 4( 0.8) <sup>a</sup>
		$\chi^2 = 23.121^{***}$ df=4	
혼례비용 지출결정권	당 사 자 아 버 지 어 머 니 기 타	13( 2.7) 91(18.6) 98(20.0) 21( 4.3)	93(19.0) 68(13.9) 92(18.8) 13( 2.7)
			$\chi^2 = 62.478^{***}$ df=3
혼례비용 부담정도	100%당사자부담 100%부모부담 부족분만 부모부담	58(11.9) 5( 1.0) 160(32.7)	64(13.7) 50(10.2) 152(31.1)
			$\chi^2 = 33.799^{***}$ df=2
혼례준비용지출	없 음 있 음	59(12.1) 164(33.5)	155(31.7) 111(22.7)
			$\chi^2 = 49.885^{***}$ df=1

\*p<.05, \*\*p<.01, \*\*\*p<.001



들이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원하므로, 전통적 절차와 서구식 절차가 다 포함된 복잡한 한국형 혼례절차가 탄생한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혼례자금을 위한 저축여부를 <표 6>에서 보면 미혼들의 경우는 저축이 없는 경우(31.7%)가 있는 경우(22.7%)보다 많았고, 어머니들은 저축이 있는 경우(33.5%)가 없는 경우(12.1%)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미혼들은 혼례비용 조달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겠다고 하면서도 결혼비용 지출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보이고 있고, 혼례준비용 저축이 없는 미혼들이 더 많았고, 혼례준비용 저축이 있는 어머니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혼례비용이 부모주도로 조달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3.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전체집단

본 연구는 혼례절차 및 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있는 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모델에 따라 세대변수가 혼례에 대한 의식(절차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n=489)

종 속 변 수	설 명 변 수	Est. Coefficient(Std. Err)
혼례절차 <sup>a</sup>	어머니세대(미혼남녀)	0.179(0.09)**
	경제생활수준	0.023(0.05)
	교육수준	0.023(0.04)
	예단중시성향	0.126(0.06)**
	물질주의성향	0.486(0.06)***
	혼례준비저축유(저축무)	0.102(0.08)
	축의금중시(축의금반대)	0.403(0.09)***
	취업(비취업)	-0.027(0.08)
	상 수	0.813
	F값	25.23***
R <sup>2</sup>	0.30	
종 속 변 수	설 명 변 수	Est. Coefficient(Std. Err)
예상하는 혼례비용	어머니세대(미혼남녀)	98.571(173.79)
	경제생활수준	-361.414(117.72)***
	교육수준	124.490( 68.96)*
	예단중시성향	-46.474(109.07)
	물질주의성향	-43.847(113.38)
	혼례준비저축유(저축무)	-36.979(149.67)
	축의금중시(축의금반대)	-95.635(179.34)
	취업(비취업)	-71.151(145.82)
	부모주도성향	141.164( 81.43)*
	절차중시성향	226.068( 83.89)***
상 수	1953.175	
F값	3.24***	
R <sup>2</sup>	0.08	

a: (+)일수록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나타냄.

( )안은 비교집단

\*p<.10, \*\*p<.05, \*\*\*p<.01

분석결과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세대가 미혼세대 보다 혼례에 있어서 약혼식에서 함들이기, 그리고 이바지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행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단중시성향, 물질주의성향, 축의금중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예단중시성향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혼례절차를 중요시하였고, 물질주의성향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혼례절차를 중요시하였으며, 축의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는 경우 축의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경우 보다 혼례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는 어머니세대 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세대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생활수준, 교육수준, 부모주도성향, 그리고 절차중시성향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계층일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가 주도하

여 혼수를 준비해야 자녀가 잘산다는 견해에 찬성할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증가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경우에 혼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표 8〉에는 어머니집단과 미혼집단에 대하여 각각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어머니집단의 경우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생활수준, 예단중시성향, 물질주의성향, 축의금중시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집단의 경우는 물질주의성향, 축의금중시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생활수준은 어머니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므로,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혼례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생활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혼례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경제생활수준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물질주의성향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절차를 중시하

〈표 8〉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설 명 변 수	어머니(n=223)		미혼남녀(n=266)	
	Est. Coeff.	Std. Err	Est. Coeff.	Std. Err
경제생활수준	0.144*	0.083	-0.112	0.070
교육수준	0.001	0.052	0.039	0.052
예단중시성향	0.155*	0.091	0.067	0.082
물질주의성향	0.369***	0.089	0.602***	0.081
혼례준비저축유(저축무)	0.067	0.143	0.120	0.106
축의금중시(반대)	0.293*	0.160	0.442***	0.113
취업(비취업)	-0.0389	0.137	-0.012	0.108
상 수		1.086		0.857
F값		6.501***		28.248***
R <sup>2</sup>		.18		.44

a: 혼례는 일생에 단 한번 있는 대사이므로 모든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

( )안은 비교집단

\*p<.10, \*\*p<.05, \*\*\*p<.01

였고, 두 집단 모두에서 축의금을 중시하는 경우 축의금을 반대하는 경우보다 절차를 중시하였다. 오늘날 축의금으로 피로연 비용을 충당하거나, 축의금을 예상하여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종종 지적되므로, 축의금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혼례에 있어서 절차를 중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어머니세대의 경우 예단이 원만한 시대가족과의 관계에 기여한다는 견해를 가질수록 혼례절차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수준, 혼례준비저축유무, 직업유무 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5.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어머니집단과 미혼집단을 각각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있다.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어머니세대의 경우는 경제생활수준, 교육수준, 절차중시성향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미혼세대의 경우는 경제생활수준, 부모주도성향

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경제생활수준은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낮은 층으로 인지할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집단에서는 절차중시성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높았다. 한편 미혼집단에서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 혼수를 준비해야 자녀가 잘산다는 견해에 찬성할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의존적인 사람일수록 호화스런 혼례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의 왜곡된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혼인적령기인 미혼남녀의 혼례절차 및 비용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

<표 9> 예상하는 혼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설 명 변 수	어머니(n=223)		미혼남녀(n=266)	
	Est. Coeff.	Std. Err	Est. Coeff.	Std. Err
경제생활수준	-332.299***	115.167	-394.556*	221.583
교육수준	164.598***	65.39	47.998	141.907
예단중시성향	-92.165	110.133	-45.699	200.857
물질주의성향	-76.267	114.007	26.021	213.886
부모주도성향	36.721	83.572	296.850**	145.526
절차중시성향	212.551***	81.612	191.781	161.829
혼례준비저축유(저축무)	-91.673	171.718	-118.016	258.252
축의금증시(반대)	-11.841	202.925	-208.329	291.047
취업(비취업)	-196.955	157.763	134.258	260.461
상 수	2343.987		1947.845	
F값	3.061***		1.863**	
R <sup>2</sup>	.13		.08	

a: 주택비용 제외한 혼례비용--예물, 예단, 신혼살림, 약혼식, 결혼식, 함, 신혼여행, 기타비용.

( )안은 비교집단

\*p<.10, \*\*p<.05, \*\*\*p<.01

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례관련 가치관에 있어서 어머니세대에서 부모주도성향 및 절차중시성향이 미혼세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물질주의성향은 미혼남녀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혼례비용조달에 대한 의식은 미혼들의 경우 부모의존적으로 혼례비용을 조달하려는 의견이 많았고, 어머니들의 경우도 일부이든 전액이든 자녀의 혼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73%)였다. 혼례준비용 저축에 있어서도 미혼들의 경우 혼례를 위한 저축이 있는 자는 적었으나 어머니들의 경우는 자녀의 혼례를 위한 저축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므로 부모주도형 혼례의식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미혼들 보다 혼례절차를 중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세대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예단중시성향 및 물질주의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축의금을 중시할수록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례비용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혼례비용을 낮게 예상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주도성향이 강할수록, 절차중시성향이 강할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세대(미혼, 어머니)집단에 대해 각각 회귀 분석한 결과, 어머니집단에서 경제수준은 혼례절차 및 혼례비용 둘다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혼례절차에 있어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혼례절차를 중시하는 의식을 보였으나 혼례비용에 있어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오히려 혼례비용을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이 낮은 어머니집단에서 절차는 중시하지만 경제력이 약하여 예상하는 비용은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혼집단에서는 경제수준이 혼례비용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자신의 경제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혼례비용을 낮게 예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혼례비용조달 측면에서 어머니세대와 미혼세대 모두 오늘날의 혼례문화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모주도형 혼례”를 뒷받침하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혼들은 혼례비용 조달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겠다고 하면서도 혼례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는 결정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풍토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는 풍요롭게 해주려는 보상심리, 그리고 부모세대들의 물질적인 지원에 익숙해온 젊은 층들의 부모의존적 사고가 이들의 혼례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인 미혼남녀들이 스스로의 혼인을 주도하려는 자주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혼인시기 이전부터, 예를들어 중등교육시기부터 바람직한 혼례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교육이전에 자녀들에게 학교교육이든 혼례든 경쟁적으로 해주려는 부모세대들의 의식 및 태도가 올바른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어머니세대가 미혼세대 보다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들의 의식이 오늘날 과도한 혼례혼수의 폐단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례혼수 준비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사회기관 및 시민단체를 통해 절차가 간소한 혼례모델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 언론기관 및 대중매체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혼례의식을 사회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어머니들이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의 어머니들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의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혼례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나 예절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혼례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효율적인 혼례혼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령에 상관없이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혼례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가치가 최근 사회전반의 과소비 성향에 영향을 준 것처럼 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우리의 혼례혼수풍토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의식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축의금을 중시할수록 혼례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보였다. 오늘날 축의금은 상부상조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축의금을 예상함으로 인하여 혼인비용 지출이 방만해지기 쉽고,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축의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원하는 선물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혼례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의식이 높을수록 예상하는 혼례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 절차와 서구적 절차를 다 행하다보면 총혼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시키고 간소화된 혼례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혼례비용의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혼례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은 절차가 축소된 간소한 혼례모형을 과감히 시도하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오늘날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진단하여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대간 의식의 차이를 통해 그릇된 혼례문화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어머니들의 절차를 중시하는 의식, 그리고 미혼들의 물질을 충분히 갖추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에서 부모주도성향, 물질주의성향, 예단중시성향, 그리고 축의금중시성향 등 혼례관련 가치관 변수를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들의 혼례관련 가치관을 충분히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의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소비적 혼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이 대체로 중류층이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인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혼례에 대한 의식실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건전한 혼례혼수풍토 분위기를 조성에 이바지하고 건전혼례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1) 강은주(1998). 경제성장에 따른 혼례문화와 혼례비용의 변화.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명나(1998). 도시주부의 혼례의식,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이길표(1983).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유현주(1991).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필도 외(1998). 가정의례의 경제적 비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손유미(1990). 서울시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47-161.
- 9)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 10) 한경순(1986).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한국여성개발원(1986). 건전한 혼례혼수.
- 12)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모색.
-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실태 조사결과.
- 14) \_\_\_\_\_(1996).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건전혼례 모델의 개발을 중심으로.
- 15)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6). 혼례문화: 그 문제점과 대안.
- 16)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결혼예식장이용 실태조사.
- 17)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 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